

『수세현서』 연구 I

- 『수세현서』의 편제에 대한 고찰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강사 차웅석

Study of 『Susehyunsuh』

-Study of 『Susehyunsuh』 chapters-

Cha Woong-suk

Chonggang Kim Younghoon is a person who cannot be dropped out in speaking of contemporary Korean history. 『Susehyunsuh』 is very meaningful since it's his early work. It was written in winter of 1904, and it was written to adjust all his medical knowledge so far, before he started lectures after appointment to a professor at Dongje medical school. In general, it's chapters are in form of poetry and a characteristic of the edition is that it's in the best use of searching the text for clinical practice. The content is basically sorted from 『Euihakyipmun』 and 『Donguibogam』, but prescriptions are mostly referred from Chosun medical books of those days.

1. 청강 김영훈 선생과 『수세현서』

『수세현서』를 지은 청강(淸崗) 김영훈 선생은 근현대 한국한의학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다.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는 동안 국운의 쇠퇴와 함께 한의학이 제도적으로 소외되고 있을 때에 재야에서 활동하면서 한의학의 보급과 교육의 맥을 이어오는 일에 앞장섰으며 해방이후에는 국회에서의 한의사를 포함한 의원제국민의료법을 통과시키는데 공헌하였다. 그리고 한국전쟁이후에는 한의사단체와 한의학교육기관을 설립하는데도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근현대에 한국한의학사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 - 東濟醫學校 설립, 八家一志會 구성, 全鮮醫會 창립, 東洋醫藥協會 창립, 東西醫學研究會 창설, 京畿道立醫生講習所

운영, 朝鮮醫士會 창립, 二元制國民醫療法 통과, 大韓漢醫師會 창립 - 등의 굵직한 사건들은 모두 청강선생과 연관되어 있을 정도로 당시 한의학계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청강선생이 이렇게 근현대 한국한학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바로 동제의학교이다.

1894년 갑오개혁과 1899년 서양식 의학교육기관의 설립으로 더 이상 한의사를 양성할 수 없게 되자, 전의(典醫) 출신인 홍철보, 장용준 등은 고종에게 건의하여 한의학교육기관을 설립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고종의 승낙을 받은 이들은 국고지원을 약속 받고 여기에서 강의를 담당할 교수를 선발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청강선생이 응시하여 높은 경쟁률을 뚫고 1등으로 선발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05년 4월부터 수강생을



청강선생의 근영(1936년)

모집하여 강의를 시작하였지만 1907년 고종이 헤이그밀사사건으로 폐위되면서 동제의학교는 폐교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후 청강선생은 동제의학교의 후원자였던 홍철보, 장용준 및 동료교수인 전광옥 등과 함께 팔가일지회를 구성하고 사설 강습소를 운영하는 등 한의학을 보급하고 명맥을 유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수세현서』는 청강선생이 동제의학교 교수로 나가기 전해인 1904년 겨울에 저술되었다. 1904년에 교수선발이 있었고 이듬해인 1905년 4월에 강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때는 선생이 교수로 선발된 이후, 자신의 의학연구를 정리할 목적으로 『수세현서』의 집필을 시도한 것으로 여겨진다. 수세현서가 지어진 洛迦山 晋門寺는 선생이 교수선발에 응시하기 전까지 머물면서 의학연구에 몰두하던 곳이다.

선생이 의학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1896년 15세 되던 해에 눈병을 앓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 당시 강화도에서 의원으로 활동하던 서도순 선생의 집에 기숙하였는데, 그때에 한의학에 눈을 떴다고 한다.¹⁾ 이후 3년간 서도순 선생에게 『황제내경』과 『의학입문』, 『동의보감』 등을 수학하였으며 다시 江華 洛迦山 晋門寺에 입산하여 3년동안 의학연구에 몰두하였다. 선생이 동제의학교에서 교수를 선발한다는 소식을 접한 것은 진문사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다.²⁾

청강선생은 동제의학교가 폐교된 이후 일제강점기 수십 년 동안 여러 차례 강습소를

1) 이종형, 『청강의감』 「청강 김영훈선생의 생애와 업적」, 成輔社 1984, p484

2) 이종형, 『청강의감』 「청강 김영훈선생의 생애와 업적」, 成輔社 1984, p484

운영하였는데 거기에서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모두 강의하였다. 선생이 주도하여 1924년에 설립한 동서의학연구회라는 명칭을 통해서도 우리는 선생이 한의학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양의 의학지식을 최대한 수용해야한다는 동서의학의 교류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상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1932년에 당시 신간회 간부였던 조헌영 선생(『통속한의학원론』의 저자)이 청강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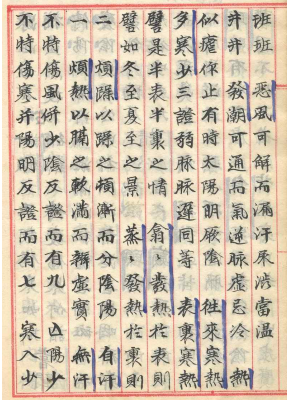


그림 1

집으로 피신해왔을 때 그가 한의학에도 정통하였으며 그 설명하는 논리가 매우 현대적이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³⁾

청강선생은 일제시대동안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연구를 병행하였는데, 『수세현서』는 그가 동서의학에 대한 견해를 갖기 이전의 그가 연구한 업적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본 논문은 『수세현서』 연구의 일부로서 『수세현서』의 편제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2. 『수세현서』의 편제 및 서술특징

『수세현서』는 표지포함 총 354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략 가로길이 155mm, 세로길이 23mm, 두께 20mm인 한적 필사본이다. 필사의 형식은 기본적으로 해서(楷書)를 쓰고 있지만, 「원도통설」이나 「습의규격」 등의 잡기(雜記)의 경우는 초서(草書)를 쓰고 있고 처방해설도 초서의 형식으로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필사본이라 함은 인쇄본을 만들기 전 단계의 초고로서의 필사본과 인쇄본을 복사한다는 의미의 전사본이 있지만, 『수세현서』의 경우에는 그 어느 경우도 아니다. 즉 청강선생은 이 책을 인쇄할 목적이 아닌 자신의 의학적인 지식을 정리할 목적으로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필사한 내용에 표지를 꾸며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이다. 본고에서는 『수세현서』의 편제특징을 다음 몇가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첫째로는 한적의 일반적인 세로쓰기 형식이 한줄씩 옮겨가면서 쓰는 것에 비해 『수세현서』에는 두줄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쓰여졌다.[그림1] 『수세현서』에서 이처럼 두줄을 하나의 단위로 사용한 것은 의학적인 내용을 가괄의 형식으로 꾸미고, 그것을 다시 댓구형식으로 기술하기 위한 형식이다. 이런 형식을 취하여 청강선생은 의학적인 내용을 함축적이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로 [그림1]의 내용중의 일부인 “惡風可解而漏汗尿澁當溫 發潮可通而氣逆脈虛忌冷”이라고

3) 이종형, 『청강의감』 「청강 김영훈선생의 생애와 업적」, 成輔社 1984, p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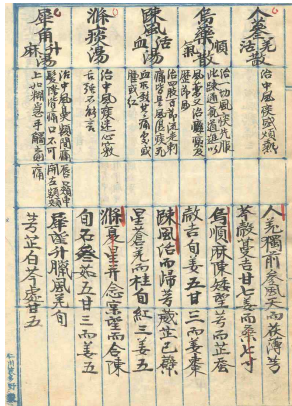


그림 2

맺구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문장중에서 “惡風可解而漏汗尿澁當溫”의 내용은 “惡風은 바람을 맞아서 생기는 증상인데 바람이 없는 밀실에 있으면 그 증상을 느낄 수 없는 것으로, 땀이 없을 경우에는 發汗시키고 땀이 날 경우에는 解肌시켜야한다. … (중략) … 만약 惡寒의 증상에 더하여 수루부지 노삽 굴신불리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계지부 자당을 쓴다. … (하략) …”⁴⁾라는 의학적인 내용을 『의학입문』의 저자 이천선생이 가괄의 형식을 빌어 요약한 것이며 청강선생이 『의학입문』의 내용을 발췌하여 실은 것이다. “發潮可通而氣逆脈虛忌冷”도 앞의 것과 유사한 분

량의 의학적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⁵⁾ 청강선생은 『의학입문』을 통해 의학을 배웠기 때문에⁶⁾ 『의학입문』에서 이천이 정리한 가괄의 형식에 익숙하였을 것이고 그러한 가괄의 형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두 줄을 하나의 단위로 사용하는 기술방식을 채택하였다고 생각된다.

둘째로는 앞서도 잠깐 언급하였다시피 내용 전체가 가괄의 형식으로 꾸며져 있다는 점이다.[그림1, 그림2] 『수세현서』의 저본이 된 것은 『의학입문』이며 『의학입문』의 내용은 가괄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그림1]처럼 『의학입문』의 내용을 발췌한 경우뿐 아니라 그림2의 처방의 용약구성까지도 가괄의 형식으로 꾸미고 있다. [그림2]에 나오는 인삼강활산의 경우는 『수세현서』에 “人參羌活散 治中風痰盛煩熱 人羌獨前參風天而茯薄芎 芎殼蔓吉甘七姜而桑七寸”이라고 되어있다. 이 내용은 『동의보감』 「잡병편」의 중풍열증에 나와있는 처방으로서 “治中風痰盛煩熱 羌活獨活前胡人參防風天麻赤茯苓薄荷川芎黃芩枳殼蔓荊子桔梗甘草各七分右剉作一貼入薑三片桑白皮七寸同煎服”의 내용을 가괄로 정리한 것이다. 주치증에 해당하는 “治中風痰盛煩熱”은 원문을 그대로 발췌한 것으로서 가괄의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수세현

4) 李梴, 『醫學入門』, 「仲景張先生傷寒纂要」 “或當風或用扇則怯風吹 居密室則不惡也 且三陰 無惡風證 悉屬陽經 無汗者 當發其汗 有汗者 當解其肌 若裏證甚而惡風未罷者 尤當先解其表而後攻其裏也 桂枝湯 加葛根主之 汗漏不止及溺澁 四肢拘急 難以屈伸者 宜桂枝附子湯 凡汗不止者 必惡風煩躁不得臥 先服防 朮牡蠣湯 次服小建中湯 惡風 項強脇滿 手足 溫而渴者 小柴胡湯 汗吐下後 惡風大渴者 白虎加參湯 惡風 壯熱者 參蘇飲 防風冲和湯 風濕 相搏 惡風身疼 小便不利者 甘草附子湯 身重惡風者 防己黃芪湯”

5) 李梴, 『醫學入門』, 「仲景張先生傷寒纂要」 “似潮水之有信 一日一發 謂之潮 必日晡 而作者 陽明 旺於 未申故耳 宜諸承氣湯 選用 或大柴胡湯 有不可下者 脈浮或弦 嘔噦飽逆 氣逆上 微瀆惡寒 發熱 非日晡所 發 是謂其熱 不潮 或潮於寅卯者 屬少陽 潮於巳午者 屬太陽 爲邪未入胃 俱宜小柴胡 和之 又日晡發熱 脈虛者 亦不可下 宜桂枝湯 微汗之 若結胸潮熱 脈浮者 屬太陽 大陷胸湯 陽明傷風 腹滿 身黃者 麻黃連 軹赤小豆湯 冬陽明 潮熱 黃芩湯 吐下後 不解 如見鬼狀 循衣摸床 微喘直視 脈澀者 死”

6) 이종형, 『청강의감』 「청강선생의 의학관」, 成輔社, 1984, p4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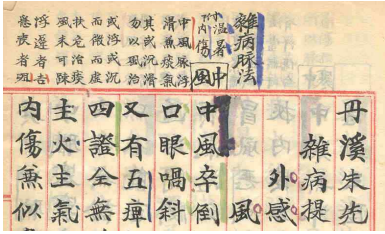


그림 3

서』에서는 注文처럼 글자의 크기를 줄여서 표시하고 있다. 이 곳뿐 아니라 『수세현서』에서는 가괄의 형식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글자의 크기를 줄여놓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괄의 형식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내용의 요점을 암기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수세

현서』 전체의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설명이 아닌 가괄을 중심으로 꾸며졌다는 것은 『수세현서』의 편집의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강선생 스스로 자신이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처방 구성약물 및 주치를 가괄로 꾸몄다는 점은 임상에서의 활용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로는 『의학입문』 및 『동의보감』 등의 내용 중에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재편하였다. [그림3]에서는 중풍의 병기를 설명하는 대목으로서 그에 관한 맥법을 添注형식으로 보충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망문문절의 사진중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은 절진에 속하는 맥진으로서, 『의학입문』에서 그 중요성을 여러 차례 역설하였다. 따라서 『의학입문』을 가장 중요한 저본으로 삼고 있는 『수세현서』로서는 증상을 기술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학입문』에서는 다른 편제에 속해있는 내용을 발췌하여 첨주형식으로 보충함으로써, 임상에서의 활용성을 높여주고 있다.⁷⁾ [그림3]의 경우는 본문과 첨주의 내용이 모두 『의학입문』의 내용을 기술한 것이지만, 본문은 『의학입문』이며 첨주는 『동의보감』인 경우같이 서로 다른 경우도 종종 있다.

넷째로는 『동의보감』의 수백개에 달하는 소목차를 첨주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동의보감』의 편제는 내경, 외형, 잡병, 부인소아, 탕액, 침구편으로 되어있으며 각 편마다. 신형, 정, 기, 신등의 소주제가 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소주제를 설명하는데 다시 세부항목을 설정하고 있다. [그림4]의 경우는 내경편의 신형문에 속해있는 세부항목을 나열한 것이다. 『동의보감』의 세부항목까지 첨주형식을 빌어 나열했다는 점은 『동의보감』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눈에 축약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동의보감』의 세부항목이 비록 해당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동

7) 청강선생은 관련된 중요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편제방식을 채택하였지만, 필사본의 한계상 혹은 지면의 제약상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 그러나 원저자의 의도를 고려한다면 『수세현서』를 복원할때는 원서의 형태와는 다르게 유사한 내용이 일치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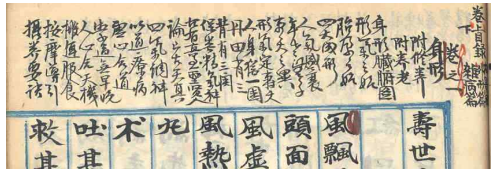


그림 4

『동의보감』의 전체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않다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다.⁸⁾ 이러한 편제구성을 통해 청강선생은 『의학입문』 뿐 아니라 『동의보감』의 깊은 내용까지도 자신의 의학적 바탕으로 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섯째로, 침구내용에 대한 기술방식이다. [그림5]는 자오유주에 관한 내용이며 [그림6]은 잡병혈법에 관한 내용이다. 본 내용은 침구혈법의 커다란 두 개의 줄기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원래는 잡병혈법이 전통적인 침법이었으나, 원대 하약우가 流注指微賦 등을 저술하면서 침법에 운기적인 요소가 가미된 이래로 명대이후에는 자오유주침법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림5의 자오유주에 대한 내용은 깨끗한 글씨체로 정서가 되어있는 반면, 그림6의 잡병혈법에 대한 내용은 글자크기도 줄고 초서를 병용하여 약간 번잡한 형태로 되어있다. 이것은 청강선생이 자오유주침법과 잡병혈법의 두가지 침법중에서 어느 것을 더 우선시하였는가를 판단하게 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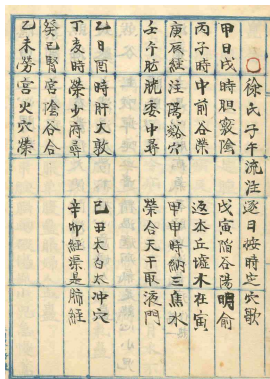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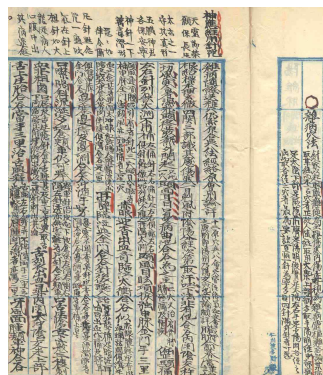


그림 6

해서는 『의학입문』에서 자오유주침법을 우선시키고 있고 잡병혈법을 보다 낮은 수준의 침법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며⁹⁾, 청강선생은 『의학입문』의 내용에 따라 『수세현서』에서도 두가지 침법의 수준에 대해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8) 『동의보감』 내경편 신형문의 “形氣之始”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乾鑿度云天形出乎乾有太易太初太始太素夫太易者未見氣也太初者氣之始也太始者形之始也太素者質之始也形氣已具而痾痾者瘵瘵者病病由是萌生焉人生從乎太易病從乎太素○參同契註曰形氣未具曰鴻濛具而未離曰混淪易曰易有太極是生兩儀易猶鴻濛也太極猶混淪也乾坤者太極之變也合之爲太極分之爲乾坤故合乾坤而言之謂之混淪分乾坤而言之謂之天地列子曰太初氣之始也太始形之始也亦類此”

9) 『의학입문』 內集一卷下の 「鍼灸門」에서는 잡병혈법의 내용을 부록으로 다루고 있고 마지막에 “본 내용은 옛 방법을 갖추어놓은 것으로 유주를 아는 의사는 쓰지 않는다(此備古法 知流注者不用)”라고 하여 자오유주침법과는 수준이 다름을 분명히 하였다.

여섯째로, 처방에 관한 기술이다. 『수세현서』의 처방부분은 『의학입문』의 상한용약부와 잡병용약부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외에 「혜암심서수증용약편」 [그림 7], 「양춘방」, 「석은보유방」, 「석경산인제생방」 등이 있다. 이중에 혜암심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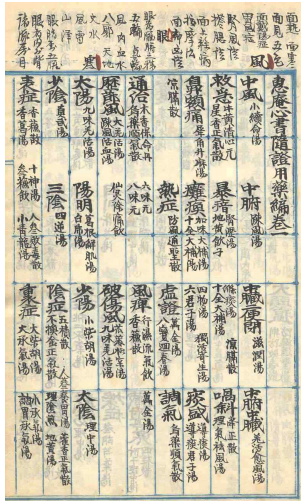


그림 7

『방약합편』의 원저자인 황도연의 저서를 말하는 것이며 『석은보유방』은 방약합편에 부록으로 실려있는 처방집이다. 이상의 처방집은 청강선생이 『의학입문』, 『동의보감』과 함께 의학적 기반을 닦은 주요 텍스트로 생각된다. 현재 『양춘방』과 『석경산인제생방』은 저자와 저술연대 및 국적이 미상이지만, 수록된 처방의 내용이 대부분 『동의보감』과 『의학입문』의 처방이거나 『만병회춘』과 『경약전서』의 처방도 일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조선 의학자들에 의해 저술된 것으로 판단된다.¹⁰⁾ 『수세현서』의 전반적인 내용이 『의학입문』과 『동의보감』을 저본으로 하고 있지만 유독 처방에 관한 내용만큼은 당대의 조선인 처방집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 이유에 대해

서는 17세기초 허준이 『동의보감』을 저술할 때 중국의 처방을 들여오면서 약량과 제법을 조금씩 바꾼 것과, 동시대의 황도연 선생이 『의방촬투』, 『방약합편』 등을 저술하면서 『동의보감』과 『의학입문』의 처방내용을 다시 바꾸고 있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청강선생의 독창적인 견해라기 보다도 당대 의학자들 사이에서 처방의 활용법 및 용량변화는 시대에 맞추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¹¹⁾

3. 『수세현서』의 의의와 추후 연구방향

청강 김영훈 선생은 근현대 한국한의학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다. 본고에서 연구한 『수세현서』는 그의 초창기의 저술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

10) 상기 의서들이 조선의서라고 추정하는 이유는 『의학입문』, 『만병회춘』, 『경약전서』 등의 비록 중국의서이지만, 명대에 간행된 의서로서 중국에서는 청대로 넘어오면서 더 이상 계승되지 않고 오히려 조선에서 더 많이 읽혔기 때문이다. 이 처방집들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고찰을 할 예정이다.

11) 필자의 이렇게 추정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청강선생은 의학에 뛰어났다고는 하지만, 『수세현서』 집필당시는 젊은 나이로 선생의 의학적인 경험이 그리 길지 않은 상태이고, 또 『수세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자신의 의학적 견지를 피력하기 보다는 기존의 의학내용을 수용하고 활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처방의 운용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를 세웠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방내용만큼은 최신의 유행을 따라간다는 관점은 당대 의학계의 통념이었다고 판단된다.

한 의의가 있다. 청강 김영훈 선생과 『수세현서』에 대해서는 그의 말년제자 이종형 선생에 의해서 유고인 『청강의감』이 간행되면서 조금 빛을 보기는 했지만, 청강 선생의 의학사적 무게를 고려한다면 아직 미흡한 편이다. 특히 『수세현서』의 경우는 『청강의감』에 소개는 되어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 1999년 청강 선생의 장자인 김기수 선생이 부친의 유품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 기증하면서 비로소 연구자들 사이에서 알려지게 되었다. 본 논문은 그 연구의 시작인 셈이다.

본 고에서는 『수세현서』의 전체적인 편차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전반적으로는 『의학입문』과 『동의보감』을 저본으로 하고 있으며, 처방은 당대의 유용한 처방집을 중심으로 기술되어있다. 이 의서는 청강 선생의 초창기의 저술로서 1904년 겨울에 선생 자신이 그 동안 공부한 의학적 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집필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 이유는 이듬해 동제대학교 교수로 발령받은 상태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의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선생은 동제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이후 한국한의학의 부침의 역사를 몸소 겪게되는데 이 과정에서 서양의학의 거대한 흐름을 접하게 되고, 한의학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서의학의 결합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게 된다. 『수세현서』는 선생이 그러한 동서의학에 대한 견해를 갖기 이전의 의학적인 형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의 순수 한의학적인 기반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러한 『수세현서』에 대해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찰하였다.

첫째, 『수세현서』는 두줄을 한 단위로 하여 편집되었다.

둘째, 『수세현서』는 전체적인 내용이 가괄의 형식으로 꾸며져있다.

셋째, 『수세현서』는 동일내용을 침주형식으로 빌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수세현서』는 『의학입문』을 저본으로 편제를 구성하였으며, 동시에 『동의보감』 전권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기 위하여 모든 세부목차를 나열하였다.

다섯째, 『수세현서』의 침법은 자오유주침법을 잠병혈법보다 우선하고 있으며, 이는 『의학입문』의 취지를 그대로 살린 것이다.

여섯째, 『수세현서』는 전체적으로 『의학입문』을 저본으로 하고 있지만, 처방부분은 당대 조선인의 의서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이상의 고찰은 청강 선생이 『의학입문』과 『동의보감』을 중심으로 의학을 공부하였으며, 『수세현서』는 선생이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자하는 의도에서 집필되었다는 가설에 대한 방증들이다. 따라서,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하여 가괄의 형식

으로 꾸몄고, 두줄을 하나의 단위로 사용하였으며, 유사한 내용을 모아서 기술하였다. 『의학입문』을 중심으로 편제를 갖추었지만 『동의보감』의 내용도 빠뜨릴 수 없었기 때문에 첨주형식을 빌어 전권의 내용을 함축시켜놓았다. 처방부분에서는 당대의 처방의 활용법 및 용량을 참고한 점과, 주치의 내용이 아닌 처방의 내용을 가괄로 정리한 점은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이 책이 저술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수세헌서』는 청강선생의 개인적인 의학사상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연구자료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한말에 당시의 한의학계의 정황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본서는 다시 복원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수세헌서』는 초서와 해서가 혼잡되어 있는 필사본으로서, 간행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영인하는 것보다는, 원저자의 의도를 최대한 살려서 다시 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